

미국 금리동결과 향후 전망

미국 금리동결에 따른 금융시장의 반응

□ 미국 연방준비제도(Fed)는 4월 26~27일(현지시간) 열린 연방 공개시장위원회(FOMC)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0.25~0.5%로 동결함

- 점진적 금리인상 기조는 유지할 것으로 시사
- FOMC 위원중 1명이 0.25%p 인상에 찬성

□ 금융시장 상황(뉴욕 오후 6시 기준)

- 주가 : 다우 0.28% , S&P 0.16% , EURO STOXX 0.29% 상승
- 10년물 국채(미국) : 1.9270 → 1.8508%
- 달러/유로 : 1.1322 → 1.1327
- 엔/달러 : 111.46 → 111.50
- 원화 NDF(1개월) : 1149.21 → 1150.80

미국 금리인상 시기 전망

□ 미 연준의 이번 발표내용으로는 미국 금리인상 시기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

- 미국경제에 대해 고용시장 및 가계소비가 개선되었다고 보면서도 기업투자 및 수출 증가세가 완만해졌다고 평가하며 경기판단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발표
- “인플레이션 지표와 글로벌 경제금융 상황을 더욱 신중히 모니터링 하겠다”는 문구도 새롭게 포함

□ 금융시장에서도 미국경기 상황 및 이번 FOMC 발표 내용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금리인상 시기에 대해 상반된 전망

(6월 인상 전망)

- 로이터통신(4.22일)에서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80명 중 50명의 응답자가 6월중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Bloomberg와 Financial Times(2016.4.28일)는 이번 FOMC 발표에서 “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” 문구를 삭제한 것을 근거로 6월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
- Barclays(2016.4.28일)에 따르면 미국경제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올해 미국금리는 6월과 12월 두 차례 인상할 것으로 예상

(하반기 인상 전망)

- Bloomberg(2016.4.26일)에서는 연방기금금리선물(Fed funds futures)을 통해 예상한 6월 인상가능성이 한달전에 비해 17%p(38.6%→21.6%) 낮아졌다고 발표
- AP통신(2016.4.27일)에 따르면 1분기 성장률이 부진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목표치(2%)에 미달하고 있어 미국 금리인상은 하반기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

- Financial Times(2016.4.4일, 4.26일)에 따르면 브렉시트(Brexit) 관련 국민투표 시기(2016.6.23일)를 고려할 때 6월 금리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12월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
- UBS(2016.4.28일)는 이번 FOMC 발표에서 6월 인상과 관련한 힌트가 없었고 미국경기 판단에 대한 신중한 입장이 확인되어 금리인상이 단기간내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
- 최근 전망에서 주요 10개 국제투자은행(IB)중 6개사는 미국금리가 6월에는 동결될 것으로 전망

담당 : 권민지 책임연구원
Tel. 051) 620-3187